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간의 관계

김미혜
국립서울병원 소아정신과 작업치료실

Abstract

The Relations Among Self-esteem, Stress and Coping Behaviors of Mothers with Handicapped Children

Kim, Mi-Hye, MA.,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Seoul National Hospital

Objective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wo-fold; First it investigated self-esteem, stress and coping behaviors of mothers with handicapped children as a function of their and their children's characteristics; Second it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variables.

Method : The subjects were 294 mothers of handicapped children who were receiving treatment in one of the sixteen special therapy institutions in Seoul, Gyeonggi-do, and Gangwon-do. Rosenberg's (1965) Self-Esteem Scale translated by Jeon Byung-Jea (1974) was used to measure the degree of mothers' self-esteem. Mothers' stress was assessed using the Support Burden Scale revised by Seong Jong-sook(2000) and their coping behavior was examined using Folkman's (1986) Coping Scale translated by Jeon Sung-hy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Result :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orking mothers of handicapped children showed higher self-esteem and problem solving coping behavior more than non-working mothers. Self-esteem was found higher with high-income mothers than with low-income ones. Stress was shown more intense to low- and middle-income mothers than to high-income ones. Problem solving coping behavior was preferred more by high- and middle-income mothers than by low-income ones.

Second, mothers with the mild-handicap children showed higher self-esteem than those with the first-degree handicap ones. Mothers of children with first-, second- and third-degree handicap perceived more stress than those with mild handicap. Coping behavio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children's handicap,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mong the groups.

Third, the higher the self-esteem of mothers was, the less they perceived stress and used more of problem solving coping behavior. When mothers perceived a great deal of stress, they used more of emotion-oriented coping behaviors.

Key Words: self-esteem, perceived stress, problem solving-oriented coping, emotion-oriented coping

I. 서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어 가족과 함께 생활주기상 요구되는 발달과업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가족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체계로서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며, 특별한 욕구를 가진 구성원이 있는 경우 독특한 욕구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김미옥, 2001). 가족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한 사람의 문제는 전체 가족체계에 영향을 미치며 전체 가족의 문제도 가족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출생은 가족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영향을 준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데, 하물며 자녀의 장애를 발견하게 될 때 받는 스트레스는 매우 클 것이다. 자녀의 출생은 그 자체가 가족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인데 장애아의 출생은 정상아의 경우보다 어머니 개인의 시간 부족, 지출 비용의 확대, 자녀 양육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등이 더 크며 가족 생활패턴에 긴장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다(Crinic 등, 1983).

장애아동의 부모는 일반아동의 부모에 비해 2~3

배 이상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배광웅과 송상천, 1986). 장애아 출생으로 가족 모두가 부담을 갖게 되나 전통적으로 아동 양육에 일차적 위치에 있는 어머니에게 그 책임이 대부분 부과되며(Beckman, 1981), 장애아 어머니가 일반아 어머니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장진국, 1995). 이삼연(1996)의 연구에서 장애아 어머니는 일반아 어머니보다 자녀양육 스트레스 척도의 전체 점수와 7개 하위척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반적 적응점수와 자녀양육에의 자신감, 역할에 대한 억압감, 우울증, 남편과의 관계에서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가정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즉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에 따라 원래의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도 있고, 가족 그 자체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족이 붕괴할 수도 있다(정민자, 1983).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감소시키는가이다. 개인이 자기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최적 수준의 스트레스를 찾아내어 최선으로 적응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장인숙, 2001). 대처는 어떤 가족이나 개인이 위기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가를 예견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어

왔다. 인생에서 스트레스의 발생은 불가피하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매우 중요하다.

Singer와 Farkas(1989)의 연구에 의하면 기능적인 장애아 어머니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도 보살핌 제공에 있어서 통제감이 높았다. Friedrich 등(1983)은 부모가 장애아동의 양육과 관련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자신의 내적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람은 자기통제감이 클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적다(Lazarus, 1996).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행동결정의 주요 요인이며, 개인적 스트레스 대응에 큰 역할(이민규 등, 1988)을 한다. Rosenberg(1967)가 주장했듯이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안녕에 중요한 개인적인 자원이므로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현재의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박시현, 2004).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 또한 높다(Pearlin과 Schooler, 1978; Taylor와 Brown, 1988; Zuckerman, 1989). Fitch(1970)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좋아하고 가치 있게 보며 세상에 대처해 나갈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소유자는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며 잘못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알고, 적응력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므로 걱정을 많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장진국, 1995).

장애아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대해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다양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행동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내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감이나 평가라고 본다면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장애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장애아 어머니와 장애아동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김동연 등, 1993; 성종숙, 2000; 오세란, 2001, 정재은과 조희선, 1995)와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연구(박덕희, 2004; 박혜진, 2004, 이해균과 이희진, 2002)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장애아 어머니와 장애아동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김동연 등, 1993; 심미경, 1997)는 많지 않다.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김동연, 1996; 장진국, 1995; 제갈광철, 2000)와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김영미, 1990; 박은신, 2004)는 조금 있으나 자아존중감과 대처행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이 어머니와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지, 이러한 세 가지 변인 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아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3.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장애아의 어머니 294명으로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위치하며 임의 선정된 국립병원, 시립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개인병원, 복지관, 사설기관 등 특수치료 관련기관 16곳에서 특수치

료를 받고 있는 아동의 어머니들이었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N=294)

변인	분류	명	백분율	
어머니	연령	35세 이하	90	30.6
		36세~40세	138	46.9
		41세 이상	62	21.1
		무응답	4	1.4
	학력	고졸 이하	114	38.8
		대졸	161	54.8
		대학원 이상	19	6.4
	취업유무	취업모	56	19.0
		전업모	209	71.0
		무응답	29	10.0
	월수입	저소득(200만원 미만)	67	22.8
		중소득(200~400만원 미만)	141	48.0
고소득(400만원 이상)		84	28.5	
무응답		2	0.7	
아동	성	남	192	65.3
		여	94	32.0
		무응답	8	2.7
	연령	학령전기(만 1~6세)	148	50.3
		학령기(만 7~12세)	136	46.3
		무응답	10	3.4
	장애유형	정신지체	74	25.2
		자폐장애	40	13.6
		지체장애	81	27.5
		운동장애	41	13.9
행동장애		14	4.8	
정서장애		7	2.4	
언어장애		26	8.8	
학습장애		7	2.4	
무응답	4	1.4		
장애정도	1급	127	43.2	
	2급	61	20.8	
	3급	50	17.0	
	가벼운 정도	48	16.3	
	무응답	8	2.7	

저, 장애아 어머니의 연령은 36세에서 40세 사이가 46.9%로 가장 많았다. 장애아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4.8%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대상의 경우 전업모가 71.0%로 대부분이었으며, 취업모는 19.0%였다. 가정의 월수입¹⁾을 살펴보면, 중소득집단(200~400만원 미만)이 48.0%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대상의 자녀는 남아가 65.3%, 여아가 32%였으며, 연령은 학령전기(만 1~6세) 아동이 50.3%, 학령기(만 7~12세) 아동이 46.3%를 차지하였다. 아동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2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정신지체(25.2%)였다. 아동의 장애 정도는 1급이 43.2%로 가장 많았다.

2. 연구도구

1) 자아존중감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척도(Self-Esteem Scale)를 전병제(1974)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들은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평정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문항인 3, 5, 8, 9, 10문항은 역채점 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19이었다.

2)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척도는 권중돈(1994)의 부양부담 사정도구를 성종숙(2000)이 번안한 것을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가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총 35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대상의 약 1/3(30%)이 한 자녀 가족이어서 장애자녀 외에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문항 세 개를 제외한 32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문항에서 제시한 지각된 스트레스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평정 척도로 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스트레스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16이었다.

3) 대처행동

대처행동척도는 Folkman 등(1986)의 대처행동척도(The Ways of Coping)를 전성혜(1989)가 번안한 것을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제 발생 시 대처행동을 알아보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8개 하위요인의 총 50문항으로 되어 있다. 8개의 하위영역은 직면, 사회적지지 추구, 계획적인 문제해결을 포함하는 '문제해결지향적 대처'와 거리두기, 자기통제, 책임감의 수용, 도피회피, 긍정적 재평가를 포함하는 '정서지향적 대처'로 분류된다. 본 척도의 문항들은 어머니의 대처행동과 문항내용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그런 경우가 없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 4점 평정 척도로 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의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되는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제해결지향적 대처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48이었으며, 정서지향적 대처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689이었다.

1) 보건복지부(2006)에서 제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정의 월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집단을 저소득집단으로, 평균근로자월급을 기준으로 가정의 월수입이 200~400만 원 미만인 집단을 중소득집단으로, 월수입 상위 20%를 기준으로 가정의 월수입이 400만 원 이상인 집단을 고소득집단으로 분류하였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연구도구의 신뢰도, 문항에 대한 장애아 어머니의 이해 정도, 질문지 작성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6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치료교육기관인 S기관에서 장애아 어머니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잘 이해되지 않거나 추상적인 단어는 구체적인 단어로 수정하였으며 아동의 장애유형 문항 중 '발달장애'를 '자폐장애'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척도 세 가지에 모두 응답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15분이었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06년 2월 16일부터 3월 6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선정된 특수치료 관련기관 16곳의 허락을 받은 후 직접 방문하여 질문지 413부를 배포한 후 2주 뒤에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배포된 질문지 413부 중 314부를 받았으나(76%), 장애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상인 경우와 질문지에 대한 응답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한 294부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장애아 어머니의 취업유무, 가정 월수입, 장애아동의 연령, 아동의 장애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t검증을 하였다.

셋째,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

레스 및 대처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따라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장애아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

장애아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및 t검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장애아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p < .05$)과 문제해결지향적 대처($p <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취업모가 전업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해결지향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였다. 문제해결지향적 대처의 하위영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지지의 추구($p < .01$)와 계획적인 문제해결($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취업모가 전업모보다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지지의 추구하고 계획적인 문제해결을 많이 사용하였다. 장애아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장애아 어머니의 가정 월수입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및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장애아

표 2. 장애아 어머니의 취업유무로 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

(N=265)

변인	구분	n	M	SD	t	
자아존중감	취업모	56	3.44	.53	2.259*	
	전업모	209	3.26	.53		
스트레스	취업모	56	2.85	.62	-1.690	
	전업모	209	3.00	.56		
문제해결지향적	취업모	56	2.76	.26	2.993**	
	전업모	209	2.63	.28		
직면	취업모	56	2.57	.32	1.931	
	전업모	209	2.48	.31		
사회적지지의 추구	취업모	56	2.87	.37	2.699**	
	전업모	209	2.71	.36		
계획적인 문제해결	취업모	56	2.84	.33	2.342*	
	전업모	209	2.71	.36		
대처행동	정서지향적	취업모	56	2.56	.24	.672
	전업모	209	2.54	.21		
거리두기	취업모	56	2.45	.33	-1.190	
	전업모	209	2.51	.38		
자기통제	취업모	56	2.65	.31	.339	
	전업모	209	2.64	.27		
책임감의 수용	취업모	56	2.64	.44	-.126	
	전업모	209	2.65	.39		
도피-회피	취업모	56	2.40	.39	.539	
	전업모	209	2.37	.37		
긍정적 재평가	취업모	56	2.71	.45	1.958	
	전업모	209	2.59	.39		

*p<.05, **p<.01

어머니의 가정 월수입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p<.001), 지각된 스트레스(p<.01), 문제해결지향적 대처(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장애아 어머니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느 집단 간에서인지 scheffé사후검증을 한 결과, 고소득집단의 장

애아 어머니가 저소득집단의 어머니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그리고 장애아 어머니의 가정 월수입에 따라 지각된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느 집단 간에서인지 scheffé사후검증을 한 결과, 중소득 및 저소득 집단의 장애아 어머니가 고소득집단의 어머니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

표 3. 가정 월수입으로 본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

(N=292)

변인	구분	n	M	SD	F	
자아존중감	저소득	67	3.13 ^a	.55	7.057***	
	중소득	141	3.31 ^{ab}	.54		
	고소득	84	3.46 ^b	.48		
스트레스	저소득	67	3.03 ^b	.53	5.805**	
	중소득	141	3.00 ^b	.59		
	고소득	84	2.76 ^a	.56		
대 처 행 동	문제해결지향적	저소득	67	2.55 ^a	.36	6.149**
		중소득	141	2.68 ^b	.26	
		고소득	84	2.70 ^b	.25	
	직면	저소득	67	2.43	.39	2.499
		중소득	141	2.53	.27	
		고소득	84	2.47	.32	
	사회적지지의 추구	저소득	67	2.63 ^a	.42	4.083*
		중소득	141	2.75 ^{ab}	.39	
		고소득	84	2.82 ^b	.41	
	계획적인 문제해결	저소득	67	2.60 ^a	.43	7.456***
		중소득	141	2.77 ^b	.34	
		고소득	84	2.80 ^b	.28	
	정서지향적	저소득	67	2.55	.28	1.727
		중소득	141	2.56	.18	
		고소득	84	2.51	.21	
	거리두기	저소득	67	2.62 ^b	.43	8.926***
		중소득	141	2.54 ^b	.34	
		고소득	84	2.38 ^a	.34	
	자기통제	저소득	67	2.64	.28	.131
		중소득	141	2.65	.26	
		고소득	84	2.66	.29	
	책임감의 수용	저소득	67	2.57 ^a	.47	3.473*
		중소득	141	2.70 ^a	.35	
		고소득	84	2.58 ^a	.41	
	도피-회피	저소득	67	2.36	.41	1.165
		중소득	141	2.40	.37	
		고소득	84	2.32	.33	
긍정적 재평가	저소득	67	2.62	.47	.170	
	중소득	141	2.61	.42		
	고소득	84	2.65	.38		

*p<.05, **p<.01, ***p<.001

a, b ; 유의도 .05수준에서 동일 문자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고, 다른 문자 간에 유의한 차이 있음

였다. 또한 장애아 어머니의 가정 월수입에 따라 어머니의 문제해결지향적 대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느 집단 간에서인지 scheffé사후검증을 한 결과, 고소득 및 중소득집단의 장애아 어머니가 저소득집단의 어머니보다 문제해결지향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였다.

문제해결지향적 대처 중에 사회적지지의 추구 ($p < .05$), 계획적인 문제해결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느 집단 간에서인지 scheffé사후검증을 한 결과, 고소득집단의 장애아 어머니가 저소득집단의 어머니보다 사회적지지의 추구를 많이 사용했으며, 고소득 및 중소득집단의 장애아 어머니가 저소득집단의 어머니보다 계획적인 문제해결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서지향적 대처 중에 거리두기 ($p < .001$), 책임감의 수용 ($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느 집단 간에서인지 scheffé사후검증을 한 결과, 중소득 및 저소득집단의 장애아 어머니가 고소득집단의 어머니보다 거리두기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책임감의 수용에서는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장애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본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

장애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및 t검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장애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 ($p < .05$)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령기의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가 학령전기의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다. 장애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대처행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동의 장애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및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장애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p < .05$), 지각된 스트레스 ($p < .001$), 문제해결지향적 대처 ($p <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아동의 장애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느 집단 간에서인지 scheffé사후검증을 한 결과, 아동의 장애정도가 '가벼운 정도'인 어머니가 '1급'인 어머니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아동의 장애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지각된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느 집단 간에서인지 scheffé사후검증을 한 결과, 아동의 장애정도가 '1급', '2급' 및 '3급'인 어머니가 '가벼운 정도'인 어머니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아동의 장애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문제해결지향적 대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느 집단 간에서인지 scheffé사후검증을 한 결과, 문제해결지향적 대처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문제해결지향적 대처 중 직면 ($p < .05$)과 사회적지지의 추구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느 집단 간에서인지 scheffé사후검증을 한 결과, 아동의 장애정도가 '3급'인 어머니가 '가벼운 정도'인 어머니보다 직면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1급'인 어머니보다 사회적지지의 추구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서지향적 대처 중 거리두기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느 집단 간에서인지 scheffé사후검증을 한 결과, 아동의 장애정도가 '1급'인 어머니가 '가벼운 정도'인 어머니보다 거리두기를 많이 사용하였다.

3.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간의 관계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스트레스 그리고 대처행동간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장애아동의 연령으로 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 (N=284)

변인	구분	n	M	SD	t
자아존중감	학령전기	148	3.31	.52	.285
	학령기	136	3.30	.53	
스트레스	학령전기	148	2.87	.57	-2.398*
	학령기	136	3.03	.57	
문제해결지향적	학령전기	148	2.66	.31	.630
	학령기	136	2.64	.26	
직면	학령전기	148	2.49	.35	.209
	학령기	136	2.49	.27	
사회적지지의 추구	학령전기	148	2.76	.42	1.202
	학령기	136	2.70	.40	
계획적인 문제해결	학령전기	148	2.73	.37	-.047
	학령기	136	2.73	.34	
대처행동	정서지향적	학령전기	148	2.54	-.341
	학령기	136	2.55	.20	
거리두기	학령전기	148	2.50	.41	-.522
	학령기	136	2.52	.33	
자기통제	학령전기	148	2.65	.27	-.021
	학령기	136	2.65	.28	
책임감의 수용	학령전기	148	2.63	.45	.142
	학령기	136	2.63	.35	
도피-회피	학령전기	148	2.38	.36	.286
	학령기	136	2.36	.38	
긍정적 재평가	학령전기	148	2.60	.42	-.768
	학령기	136	2.64	.42	

*p<.05,

첫째,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부적상관(p<.001)이 나타났다. 즉, 장애아 어머니는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였다.

둘째,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대처행동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아 어머니의 자

아존중감과 문제해결지향적 대처간에 유의한 정적상관(p<.001)이 나타났다. 즉, 장애아 어머니는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문제해결지향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였다.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지향적 대처 중 사회적 지지의 추구(p<.001)와 계획적인 문제해결(p<.001)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표 5. 아동의 장애정도로 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

(N=286)

변인	구분	n	M	SD	F
자아존중감	1급	127	3.25 <i>a</i>	.53	3.679*
	2급	61	3.28 <i>b</i>	.48	
	3급	50	3.32 <i>b</i>	.58	
	가벼운 정도	48	3.54 <i>b</i>	.54	
스트레스	1급	127	3.13 <i>b</i>	.56	14.197***
	2급	61	2.96 <i>b</i>	.56	
	3급	50	2.86 <i>b</i>	.49	
	가벼운 정도	48	2.53 <i>a</i>	.53	
문제해결지향적	1급	127	2.62 <i>a</i>	.24	3.833**
	2급	61	2.72 <i>a</i>	.23	
	3급	50	2.74 <i>a</i>	.27	
	가벼운 정도	48	2.60 <i>a</i>	.39	
직면	1급	127	2.51 <i>b</i>	.28	3.142*
	2급	61	2.53 <i>b</i>	.30	
	3급	50	2.54 <i>b</i>	.24	
	가벼운 정도	48	2.38 <i>a</i>	.41	
사회적지지 추구	1급	127	2.65 <i>a</i>	.37	5.444***
	2급	61	2.82 <i>b</i>	.32	
	3급	50	2.89 <i>b</i>	.43	
	가벼운 정도	48	2.73 <i>b</i>	.49	
계획적인 문제해결	1급	127	2.71	.32	1.755
	2급	61	2.81	.33	
	3급	50	2.79	.35	
	가벼운 정도	48	2.69	.42	
정서지향적	1급	127	2.57	.19	1.658
	2급	61	2.56	.17	
	3급	50	2.55	.18	
	가벼운 정도	48	2.49	.31	
거리두기	1급	127	2.62 <i>b</i>	.34	8.740***
	2급	61	2.45 <i>b</i>	.35	
	3급	50	2.49 <i>b</i>	.30	
	가벼운 정도	48	2.33 <i>a</i>	.44	

*p<.05, **p<.01, ***p<.001

a, b ; 유의도 .05수준에서 동일 문자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고, 다른 문자간에 유의한 차이 있음

표 5. 아동의 장애정도로 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계속) (N=286)

변인	구분	n	M	SD	F	
대 처 행 동	자기통제	1급	127	2.65	.27	.071
		2급	61	2.65	.27	
		3급	50	2.67	.25	
		가벼운 정도	48	2.65	.31	
	책임감의수용	1급	127	2.66	.41	1.395
		2급	61	2.66	.30	
		3급	50	2.65	.39	
		가벼운 정도	48	2.53	.46	
	도피-회피	1급	127	2.40	.35	.602
		2급	61	2.38	.34	
		3급	50	2.34	.36	
		가벼운 정도	48	2.33	.43	
	긍정적재평가	1급	127	2.58	.43	1.471
		2급	61	2.71	.32	
		3급	50	2.68	.36	
		가벼운 정도	48	2.62	.49	

*p<.05, **p<.01, ***p<.001

표 6.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간의 관계 (N=294)

변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스트레스	-.455***	-	
대 처 행 동	문제해결지향적	.286***	-.102
	직면	.095	.053
	사회적지지의 추구	.255***	-.173**
	계획적인 문제해결	.312***	-.092
	정서지향적	-.030	.176**
	거리두기	-.074	.100
	자기통제	.064	.110
	책임감의 수용	-.075	.219***
	도피-회피	-.383***	.397***
	긍정적 재평가	.371***	-.256***

p<.01, *p<.001

즉, 장애아 어머니는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사회적지지 추구가 계획적인 문제해결을 많이 사용하였다. 반면,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향적 대처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향적 대처 중 도피-회피($p < .001$)간에는 유의한 부적상관, 긍정적 재평가($p < .001$)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장애아 어머니는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도피-회피를 적게 사용하였으나, 긍정적 재평가는 많이 사용하였다.

셋째, 장애아 어머니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처행동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아 어머니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정서지향적 대처간에 유의한 정적상관($p < .01$)이 나타났다. 즉, 장애아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 때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정서지향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였다. 장애아 어머니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정서지향적 대처 중 책임감의 수용($p < .001$)과 도피-회피($p < .001$)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 긍정적 재평가($p < .001$)간에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장애아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 때 책임감의 수용과 도피-회피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긍정적 재평가는 적게 사용하였다. 반면, 장애아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와 문제해결지향적 대처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장애아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와 문제해결지향적 대처 중 사회적지지 추구($p < .01$)간에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장애아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 때 사회적지지 추구를 적게 사용하였다.

IV. 고 찰

본 연구는 선정된 특수치료 관련기관 16곳에서 특수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아 어머니 294명을 대상으로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 전에 장애아 어머니와 장애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1. 장애아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

취업모가 전업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는 취업모의 경우 자신이 독립적으로 경제생활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미경(1997)의 연구에서 취업모가 전업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장애아 어머니 51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연구 대상의 수가 적었던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아 어머니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확립되어 어머니에게 시간적 여유를 마련해 주어야겠다.

장애아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장애아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지각된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동연, 1996; 김희수, 1995; 박혜진, 2004; 이한우, 2002; 이해균과 이희진, 2002)와 일치하는 것이다. 취업모의 경우 집안일과 직장일을 병행함으로써 육체적인 노동에 대한 부담은 클 수 있을지라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장애아 어머니로서 겪게 되는 정신적인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취업유무에 따른 전체 스트레스에서의 유의한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취업모가 전업모보다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해결지향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지향적 대처의 하위영역에서 취업모가 전업모보다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지지와 계획적인 문제해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인 경우 전업모에 비해 사회생활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어 자신의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가 전업모에 비해 문제해결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처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최용득(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박혜진(2004)의 연구에서 전업주부에 비해 취업주부가 기분해소형의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정 밖에서 일을 하는 어머니는 직업과 관련하여 기분을 해소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것이라는 해석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정 월수입이 고소득집단인 장애아 어머니가 저소득집단인 어머니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월수입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심미경, 1997)와 같다.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중 일반적 자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제갈광철, 2000)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가정 월수입이 낮아 기본 생계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것이 자신의 무능력으로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월수입이 보장되어야 자신에 대해서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중소득 및 저소득 집단의 장애아 어머니가 고소득집단의 어머니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정신지체가 어머니의 생활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와 가족의 문제, 부모의 비판적 태도, 아동의 신체적 무능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높다고 한 연구결과(제갈광철, 2000)와 같다. 또한 시각장애아 부모의 월수입이 적을수록 유능

성과 부모의 우울감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한 연구결과(이해균과 이희진, 2002)와도 일치하였다. 그밖에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한다고 보고한 연구(김나영과 윤호열, 2000)와 250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한 연구(박혜진, 2004)와도 일관되고 있다. 이는 가정 월수입이 적은 경우 기본 생활 뿐 아니라 장애아동 양육과 치료교육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없게 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의 협조가 어렵게 되어 심리적 부담감이 더욱 가중되고,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반면,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한 연구결과(박은신, 2004; 오세란, 2001)와는 다르게 나왔다. 이로 보아 장애아 가족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정지원과 함께 특수치료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가정 월수입이 고소득 및 중소득 집단의 장애아 어머니가 저소득집단의 어머니보다 문제해결지향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였다. 가정 월수입에 따른 문제해결지향적 대처의 하위영역에서 고소득 및 중소득 집단의 장애아 어머니가 저소득 집단의 어머니보다 계획적인 문제해결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고소득 집단의 장애아 어머니가 저소득 집단의 장애아 어머니보다 사회적지지 추구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월 평균 소득이 많은 가정일수록 장애아동 어머니는 문제에 대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활용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연구결과(최용득, 1993)와 일치하였다. 또한 월수입이 많을수록 긍정적 해석을 많이 하고, 정서적 진정을 많이 한다고 한 연구결과(이해균과 이희진, 2002)와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기분 해소형의 대처를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박혜진, 2004)를 뒷받침하

고 있다. 이는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월수입이 많아 경제적으로 안정된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기에 회피하기보다는 직접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해볼 것이라고 본다. 가정 월수입에 따른 정서지향적 대처의 하위영역에서 중소득 및 저소득 집단의 장애아 어머니가 고소득 집단의 어머니보다 거리두기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책임감의 수용에서는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월 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회피형의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박혜진, 2004)와 일치하였다. 이는 월수입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생계수단에 중점을 두다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며,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해 문제 상황으로부터 피하게 될 수 있다고 본다.

2. 장애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본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의 차이

장애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장애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난 연구결과(Beckman, 1983; Friedrich, 1979; 장진국, 1995)와 일치하였다. 이는 어머니들이 장애를 지닌 아동을 맞이하여 양육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므로 아동의 연령 외에 장애정도나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학령기의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가 학령전기의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학령전기 장애아동의 부모에 비해 학령기 장애아동 부모의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이한우, 2002)와 일치하였다. 장애아동이 학령기에 접어들게 되면 아동의 교육을 위한 어머니의

정신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면서,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학업이나 능력 면에서 정상아동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일 때, 어머니는 더욱 열등감을 느끼게 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배은주(1999)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루기 힘들어지고 정상아동에 비해 능력 면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부모의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하수민과 윤종희, 2002)를 지지한다. 이는 적용이 어느 단계에 이르러 완성되기보다는 아동이 인생의 어떤 주기에 다다를 때마다 슬픔과 고통이 되풀이되고 반복된다는 만성적 슬픔의 이론(Olshansky, 1962)에 입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장애아동이 학령기로 접어들면서 부족한 교육 여건과 제도상의 문제를 겪게 되며 장애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수행과의 차이가 커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장애아동의 연령이 낮은 경우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한 연구(김영미, 1990, 성종숙, 2000)와는 상반된 결과이며, 장애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스트레스에서 차이가 없다고 한 연구(김나영과 이승희, 2001; 이해균과 이희진, 2002)와는 다르게 나왔다. Beckman(1983)의 연구에서는 3세 이하의 장애아동가족을 대상으로 매우 한정된 연령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정도에서 관계가 없다고 나타날 수 있겠다.

장애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장애아동의 연령에 따라 적극적 노력형과 회피형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박혜진, 2004)와 일치하였다. 장애아 어머니의 대처행동은 장애아동의 연령보다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나 스트레스 정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동의 장애정도가 '가벼운 정도'인 어머

니가 '1급'인 어머니보다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장애정도가 약한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제갈광철, 2000)와 같다. 그밖에 장애정도가 가벼운 경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나타난 연구결과(김동연, 1993; 류정혁, 1990; 장진국, 1995; 정청자, 1989; Friedrich, 1979)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장애아 어머니들 중 대다수가 아동의 장애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으므로 아동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어머니 스스로 죄의식을 더 갖게 되며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아동의 장애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심미경, 1997)와는 다르게 나왔는데, 심미경(1997)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아동의 장애정도가 경하다고 인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아동의 장애정도가 '1급', '2급' 및 '3급'인 어머니가 '가벼운 정도'인 어머니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도(經度) 장애아동 어머니들은 중도(重度)나 중도(中度) 장애아동 어머니들에 비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낮으며, 장애아동을 보살피는데 있어 장애아동의 특성상 육체적 부담을 더 많이 갖는 어머니들은 그러한 부담이 적은 어머니들에 비하여 스트레스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정청자, 1989)와 일치하였다. 아동의 장애 정도가 "경미한 편"일 때가 "보통인 편", "다소 중한 편", "중한 편"인 경우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박혜진, 2004)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밖에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결과(김동연, 1996; 오세란, 2001; 이미지, 2002; Hayden과 Goldman, 1996)가 많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장애가 심한 경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머니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고, 장애아동을 정

상아동과 비교하면서 외부와 차단되어 지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동의 장애정도에 따른 어머니의 문제해결지향적 대처에 있어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문제해결지향적 대처의 하위영역에서는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동의 장애정도가 '3급'인 어머니가 '1급'인 어머니보다 사회적지지의 추구를 많이 사용하였다. 아동의 장애정도가 '3급'인 어머니가 '가벼운 정도'인 어머니보다 직면대처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아동의 장애정도가 '1급'인 어머니가 '가벼운 정도'인 어머니보다 거리두기대처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장애가 "경미한 편"일 때보다 "중한 편"인 경우 회피형의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박혜진, 2004)와 일치하였다. 장애아의 신경학적 합병증이나 질병의 중증도가 클 때 장애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감이 감소한다는 견해(Singer와 Farkas, 1989)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아동의 장애가 호전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게 되며, 부딪히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직접 해결하고자 하기보다는 덮어두려는 경향이 많아지리라 생각한다. 반면, 장애정도에 따라서는 대처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한 연구결과(강시열, 2000; 김종민, 2001; 송영화, 1994)와는 다르게 나왔다.

3.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간의 관계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스트레스 간에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어, 장애아 어머니는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격적 자아, 신체적 자아, 가정적 자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덜 느낀다고 한 연구결과(김동연, 1996)와 일치하였다. 열등한 자아개념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은 스트레스를 경감시킨다고 한 Daniel과 George의 연구(장진국, 1995. 재인용)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장진국, 1995; 제갈광철, 2000; 황경자, 2002)와도 일관되고 있다.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지향적 대처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어,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문제해결지향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은 심리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 (Emmon과 Diener, 1985) 스트레스 사건에 덜 취약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Aspinwall과 Taylor, 1992; Taylor와 Brown, 1988)와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높은 동기를 지닌다는 연구(Pearlin과 Schooler, 1978; Taylor와 Brown, 1988; Zuckerman, 1989)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자신감을 갖고 문제에 대해 부딪혀보려는 시도가 많을 것이며,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며 문제의 원인파악에 보다 기능적으로 작용하며 문제해결에 대한 개인의 통제감과 자신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한 주장(최정아, 1997)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장애아 어머니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정서지향적 대처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어, 장애아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 때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정서지향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서중심의 대처를 많이 이용하는 대상자의 경우 문제중심의 대처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정신적, 신체적 증상이 더 많이 발생된다고 한 견해(Folkman 등, 1986)를 뒷받침하였다. 이는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상황을 변화시키기 어

렵다고 판단하게 되어 그 상황 속에서 감정을 다스리려는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장애아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장애아 아버지와 가족도 포함시켜 일반화의 폭을 넓혔으면 한다.

둘째, 본 연구대상인 장애아 어머니들은 치료교육기관을 다니고 있으며 과반수(61%)가 대졸이상의 학력소지자여서 일반 장애아 어머니의 특성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을 수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치료교육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아 어머니들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으면 한다.

셋째, 장애아 어머니와 장애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외에도 환경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의 지원, 사회적 지원 등 다른 중요한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넷째, 궁극적으로 장애아 어머니의 문제해결지향적 대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지각된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가 거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아 어머니와 장애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둘째, 본 연구는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각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대처행동간에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해결지향적 대처를 증진시킬 수 있다.

넷째,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확인함으로써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실제 프로그램의 고안과 실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모가 전업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문제해결지향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고소득집단의 어머니가 저소득집단의 어머니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중소득 및 저소득집단의 어머니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 고소득 및 중소득 집단의 어머니가 저소득집단의 어머니보다 문제해결지향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였다.

둘째, 장애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가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다. 아동의 장애가 '가벼운 정도'인 어머니가 '1급'인 어머니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1급', '2급' 및 '3급'인 어머니보다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였다. 장애정도에 따라 문제해결지향적 대처가 유의하게 차이 있었으나, 사후검증결과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즉, 장애아 어머니는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였으며, 문제해결지향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장애아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 때 정서지향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장애아 어머니의 취업유무, 가정 월수입, 아동의 장애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가정 월수입, 장애아동의 연령, 장애정도에 따라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유무, 가정 월수입, 아동의 장애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대처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간의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가 대처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 강시열. 가정환경과 아동 변인에 따른 시각장애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0.
- 김나영, 윤호열. 정신지체 부모의 스트레스와 가족결합력. 대한가정학회지. 2000;149:53-65.
- 김나영, 이승희. 장애아동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스트레스와 우울, 가족결합력. 발달장애학회지. 2001;5(2):31-42.
- 김동연.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자아긍정감과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치료학회지. 1996;5:16-31.
- 김동연, 전종국, 최선남.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자아긍정감에 관한 연구. 재활과학연구. 1993; 11(1):57-66.
- 김미옥.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 가족 탄력성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1.
- 김영미.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0.

- 김종민.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1.
- 김희수. 장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대처자원과의 관계 : 부모통제소와 사회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5.
- 류정혁. 뇌성마비 아동의 일상생활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0.
- 박시현.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및 가족체계 유형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4.
- 박은신. 뇌성마비아동 어머니가 받는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4.
- 박혜진. 장애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과 생활만족도.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4.
- 배광웅, 송상천. 장애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의 스트레스 비교 연구. 성지재활연구. 1986;3: 13-35.
- 배은주. 장애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기독교 상담적 대처방안. 기독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9.
- 성중숙. 발달장애아 가족의 스트레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0.
- 송영화. 뇌성마비아 부모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994;6(1): 49-60.
- 심미경.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대처유형,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997; 27(3):673-682.
- 오세란. 장애아 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2001;46(9):263-289.
- 이미자. 정신지체아 양육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 이민규, 김순화, 금명자. 스트레스 : 그 원인과 대책.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8.
- 이삼연. 장애아 모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996;30:139-164.
- 이한우. 발달장애아동 가족지원 특성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2.
- 이해균, 이희진. 시각장애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연구.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2002;3(3):1-30.
- 장인숙. 자녀양육에 대한 죄책감, 격리불안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1.
- 장진국. 정신지체아 부모와 일반아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5.
- 전병제. Self-esteem ;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974;11:107-124.
- 전성혜.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및 대처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9.
- 정민자.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3.
- 정청자. 장애아 가정의 긴장(Stress)과 적응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9.
- 제갈광철.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0.
- 최용득.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와

- 대처행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최정아. 자의식과 자존감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
- 하수민, 윤종희.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02; 40(10):191-200.
- 황경자. 중복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2.
- Aspinwall IG, Taylor SE. Modeling cognitive adaptation: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2;63:989-1003.
- Beckman PJ. Child-related stress in families in of handicapped children. *Topic in Early Children Special Education*. 1981;1:45-54.
- Beckman PJ(1983). Influence of selected child characteristics on stress in families of handicapped infants.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1983;88(2):150-156.
- Crinic KA, Greenberg MT, Ragozin AS, et al.(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1983;54: 209-217.
- Emmon RA, Diener E. Personality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85;11:89-97.
- Folkman S, Lazarus RS, Dunkel-Schetter C, et al.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6;50(5):992-1003.
- Friedrich WN. Predictors of coping behaviors of mothers of handicapp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9;7(6):1140-1141.
- Friedrich WN, Greenberg MT, Crinic K. A short-form of the questionnaire on resources and stress.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1983;88(1):41-48.
- Hayden M, Goldman J. Families of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 Stress levels and need for services. 1996. 657-667.
- Olshansky S. Chronic sorrow: A response to having a mentally defective child. *Social Casework*. April. 1962.
- Pearlin LI, Schooler, C.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78;19:2-21.
- Singer L, Farkas KJ. The impact of infant disability on mental perception of stress. *Family Relations*. 1989; 38.
- Taylor SF, Brown JD.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988;103: 193-210.
- Zuckerman DM. Stress,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How does gender make a difference? *Sex Roles*. 1989;20:429-444.